

인사말



남상욱 KAC 이사장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KAC를 아껴주시고 후원해 주시며 기도해주신 여러 이사님 후원자님 그리고 동역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해부터 KAC 총회 즈음해서 연간 소식지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한해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면서 보다 더 소통의 면을 넓히고 합니다.

한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KAC 재정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점, 알란크라이더 연구모임, MNN와 연계한 교환프로그램 같은 여러 사업들을 새로이 시작한 점입니다. 그리고 MATGA 프로그램을 매개로 느헤미아 기독연구원과도 교류가 깊어진 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아 여러 지체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풍성한 소식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남 상욱 형제 드림
KAC 이사장

KAC 소식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한해 동안 KAC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문선주

1.2023년 아나뱃티스트 컨퍼런스 : 공동체와 평화를 이야기하다.



2023년부터 코로나가 주는 위기감이 크게 감소하면서 여러 기관에서 대면모임도 조심스레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KAC도 매해 1월 셋째 주에 여는 아나뱃티스트 컨퍼런스를 대면모임과 비대면모임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를 도전해 보았습니다. 컨퍼런스 주제는 공동체와 평화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의제인 “공동체와 평화를 이야기하자!”로 했습니다. 주 강사로는 밝은 누리 공동체의 최철호 목사가 기조연설로서 “공동체가 평화를 실천하는 성경적, 신학적 기반”을 다루어주셨습니다. 이후 패널로는 회복적 아파트 위스테이의 손병기 감사께서 ‘Buy가 아닌 Live를 위한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봄내시민평화센터의 김복기 센터장의 ‘평화에 기반한 지역 공동체 내의 평화교육’, 길벗평화영성회복서클의 이혜진목사의 ‘성평등과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 일상생활사역연구소의 지성근목사의 ‘일상 속에서 만들어 가는 일상의 평화, 제자도’가 이어졌습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과 온라인의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함께 하셨던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무엇보다 공동체에서 이루어낸 값진 평화,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한 노력을 들을 수 있었던 귀한 기회였습니다. 또한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준비해 주신 한분 한분의 수고가 빛났던 순간이었습니다.

2. MATGA 프로그램 GO!

MCSK, AMBS,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이 세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드디어 한국에 아나뱃티스트 신학을 배울 수 있는 MA과정인 Master of Arts: Theology and Global Anabaptism (MATGA) 프로그램이 지



난 가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오래 전부터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James Krabill 교수님의 pilot수업을 필두로 겨울에 배덕만 교수님의 ‘아시아 교회사’ 수업이 있었고, 이번 여름에는 Beverly Lapp과 David Miller의 ‘Leadership’, 가을학기에는 김근주 교수님의 ‘구약학 개론’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4월초에 AMBS에서 배덕만 교수님과 함께 MOU 체결식을 가졌고, 한국에서는 9월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에서 MOU 체결 축하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이미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로 공부를 위한 협력공동체가 형성되어 서로를 장점을 격려하며 배움의 깊이를 더해 가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KAC는 이들이 한국 실정한 맞는 고유한 한국 평화 신학을 연구하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합니다.



3. 알랜 크라이더를 말하다

1,2,3:

2023년도 리본독서모임의
대면모임은 알랜 크라이더의

초기교회연구자료를 모두 물려받으신 홍현민 선교사님(위클리프/GBT선교사)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임을 참석하는 동안 알랜 크라이더 교수님이 마치 다시 살아게셔서 우리에게 초기교회의 교훈을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듯한 감동이 일었습니다. 전도나 부흥을 말하기 전에 인내하면서 자신의 성품을 가꾸고 공동체의 관계를 든든하게 세웠던 초기 교회의 실천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있는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허현 목사님을 모시고 알랜 크라이더의 <평화교회>책도 함께 읽으며 초기교회와 평화교회의 공통분모도 생각해 보았는데, 약자에 대한 관심, 그들에 대한 교회의 구체적인 헌신과 실천이라는 면에서 강력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리본모임

‘알랜 크라이더를 말하다’외에 중간 중간 아나뱃티스트 정신을 담아 낼 수 있는 강사들과 함께 한 리본모임도 있었습니다. 5월 부르노 하이드 부부와 함께 읽은 <이것이 아나뱃티스트다>. 6월에는 허현목사님과 함께 알랜 크라이더의 <평화교회>, 7월에는 느헤미야 기독연구원의 배덕만 교수님과 함께 <땅에서 하늘을 산 사람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느헤미야 기독연구원의 신약학 교수이신 김성희 교수님과 함께 여성의 시선으로 읽는 신약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10월에는 MCC 동북아시아, 느헤미야 기독교연구원, ReconciliAsian과 함께 공동으로 AMBS교수이신 드류 스트레이트를 모시고 <평화의 복음으로 기독교 국가주의에 저항하기>라는 묵직한 주제로 온라인 웨비나를 가졌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 시절에 평화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좋은 도전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고 나와 다른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5. 춘천을 방문하신 여러 해외손님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복음전도활동을 하시는 The church of God in Christ Mennonite 교회에서 오신 Ross Dirk와 아내 Brenda, 스위스 메노나이트에서 오신 Bruno와 Heidi부부, MCC평화기행으로 방문하신 여러 형제자매들과, MATGA프로그램의 교수로 오신 David Miller, Beverly Lapp의 방문은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올 가을 10월에는 여러 손님들이 캐나다에서 오셨습니다. Erv & Marian Wiens목사님 내외분께서 한국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신 뒤 10여 년 만에 다시 한국의 형제자매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분들은 KAC도 2012-14년 기간 섬겨주셨습니다. 이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첫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이분들이 주신 감동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교훈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에 캐나다 Witness부서에서 섬기고 계시는 Jeanette과 Kevin 형제자매가 오셨습니다. 그간의 섬김과 우정을 확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과 한몀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6. ISF 이모저모

ISF 유학생 사역은 줌미팅과 대면모임을 병행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주1회 1시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학생들이 주를 이루며, 가정을 이미 꾸리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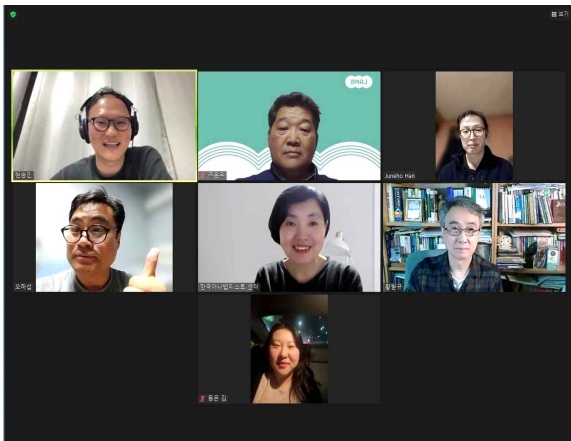
는 포스트 닥터들도 한국어 수업에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는 선생님,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돌보는 선생님 등 다양한 형태의 수고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오프라인 모임을 선호하는 학생들과 함께 한신교회에서 대면 수업도 10여명이 모여서 시작했습니다.



월 1회 단체 야유회를 춘천한신교회의 도움을 받아 봄에 진행했습니다. 향교에서 한국문화체험, 강촌에서 레일바이크타기, 소양강에서 카누타기 등 유익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7. 아나뱃티즘 at 500



2025년 아나뱃티스트의 50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메노나이트교회에서 아나뱃티스트 주석의 성경책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KAC도 함께 하였습니다. 전 세계 500여 개의 그룹이 성경 본문을 500개로 분리하여 각 맡은 내용을 묵상하고 그 내용을

함께 나눈 후, 그것을 다시 모아 성경을 만드는데 활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에서 허현 목사님을 통해 이미 한 그룹이 성경모임을 시작했고, 두 번째 그룹이 KAC를 통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공부모임이라 해도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마디씩 자신의 성찰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만으로도 기뻐하는 분이 계셨고,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나눌 때 우리나라는 정

직한 힘에 감동을 받는 분도 많았습니다. 여력만 된다면 계속 이런 성경공부그룹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여운을 남기며 1달 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8. 회복적 정의-평화감수성훈련

한림대 갈등전환센터에서 회복적 정의 교육을 이수한 선생님들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와 자활센터 및 지역시민모임 등을 방문하면서 평화감수성훈련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붕괴되고,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곳을 찾아가 씨클을 진행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학생들과 주민들의 웃음꽃이 피고, 대화의 만족감을 경험하는 일은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갈등은 산재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폭력적인 모습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작은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심정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을 만나는 순간은 참 행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등조정모임을 통해서 학교 내의 갈등으로 인한 심신의 고통을 겪는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배워가며, 한층 성숙한 관계를 경험하는 학생들을 응원해 줄 수 있어서 보람이 넘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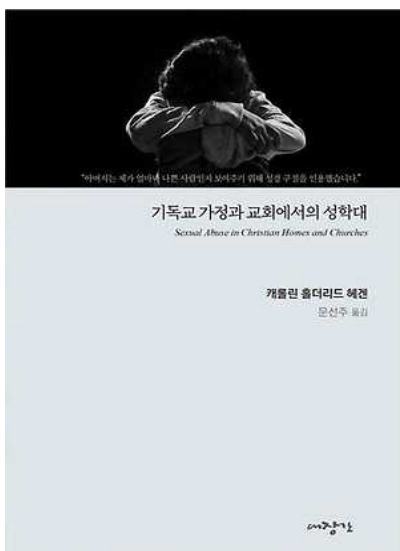


9. 크라이더 연구모임 시작

지난 3월부터 리본모임을 통해 시작된 <알렌 크라이더를 말하다>모임은 일회성이거나 단편적 모임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지속적인 연구모임을 만드는데 함께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알렌 크라이더

와 아내이신 엘리노 크라이더 교수님의 책과 논문을 읽으면서 이분들이 연구하신 초기교회의 자료들을 한국교회가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모임입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로서 관심자 중심의 소그룹이지만 이 연구회는 자료를 축적시켜 가고, 그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모든 자료와 내용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고민하고 초기교회에서 조언을 얻고자 하는 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 크라이더 교수님이 맛보신 초대교회에서 발견한 생명의 물을 한국교회도 맛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9. 책번역: <기독교 가정과 교회에서의 성학대>



올해는 대장간 출판사를 통해서 책 1권을 번역했습니다. 지난 2019년도 시스터케어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강사로 오셨던 캐롤린 홀더리드 헤겐의 <Sexual Abuse in Christian Homes and Churches>를 우리말로 번역하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수많은 성폭력과 성추행을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가해자는 더욱 기세등등해지고 피해자가 오히려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는 교회 내에서 이런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캐롤린 헤겐의 경험과 상담에서 나오는 지혜를 바탕으로 폭넓게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성들의 평화를 위해 꼭 읽고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KAC 2024의 새로운 사역 계획

2024년에 여러 새로운 사역을 계획하고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1. 1월 아나뱃티스트 컨퍼런스: 제자도와 공동체를 이야기하자!

2024년 8차 아나뱃티스트 컨퍼런스의 주제는 '제자도'와 '공동체'입니다. 이 두 주제를 함께 다루며 성경이 말하는 급진적 제자도의 삶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생각하고, 전쟁의 소식이 난무한 시대에 평화를 추구하는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 도전하고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그런 제자도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녹아내야 하는지를 몸소 공동체의 삶의 사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 제자도와 공동체를 이야기하자!

일정: 2024년 1월 20일 (토) 오후 2:00~6:00시

장소: 서울 염산교회 평화나루도서관 5층 드림홀

함께 하는 강사:


1)노종문 (좋은나무 편집주간): 산상수훈과 급진적 제자도

2)배기찬 (평화학 박사): 평화를 실천하는 제자

3)이재영, 최영희 (오두막 공동체): 공동체에서 실천하는 제자도

연락처: 033-242-9615 혹은 010-9429-3752 이메일 kac@kac.or.kr

Mennonite Voluntary Service
20대 청년들을 위한
미주봉사프로그램



프로그램: 1)Service Adventure
2)Mennonite Voluntary Service

대상: 20대 초중반의 크리스찬 청년으로 영어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자

목적: 청년 공동체생활 경험 및 봉사활동을 통한 언어훈련

기간: Service Adventure (10개월), MVS(1-2년)

비용: 자세한 내용은 링크 확인

2. MMN과 연계된 MVS, Service Adventure

현재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사회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고, 서비스 어드벤처는 1989년 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복미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신앙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의 폭과 깊이를 경험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문화간 교류의 기회는 매우 교육적이며, 복미 장기 프로그램에 더 많은 외국인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20대 초반의 크리스찬 청년들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대학 생활 중 휴학기간 혹은 gap year의 시간을 해외에서 봉사하며 언어훈련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두 종류입니다.

아래 영문을 검색창에서 찾아 보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Mennonite Mission Network Service Adventure 서비스 어드벤처(18~20세, 10개월 프로그램)

Mennonite Voluntary Service | MMN (mennonitemission.net) 메노나이트 볼런티어 서비스 (21~24세, 1~2년 프로그램)

-대상: 20대 초반의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영어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자

-기본 구조: 참가자들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며 지역 교회의 지원을 받고, 주당 35~40시간 동안 기관(보통 지역 비영리/지원 기관)에서 봉사합니다. 배치 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참가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공동 지갑/공동 재정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지역 프로그램은 참가자에게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합니다. 이 경험은 안전한 장소에서 자립심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현지 리더십: 서비스 어드벤처 유닛에는 유닛 하우스에 상주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참가자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는 부모는 아니지만 지원과 구조를 제공합니다. MVS 유닛에는 유닛 하우스에 거주하지 않는 현지 지도자가 있습니다.

-영어 능력. 배치 기관에서의 업무와 다른 프로그램 참가자 및 호스트 교회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실력은 필요합니다.

-지원절차. 파트너 기관인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Korea Anabaptist Center)에서 지원서와 추천서를 접수하고, 지원자가 서비스 어드벤처에 적합한지 면접을 통해 결정하는 등 지원자를 위한 인사 프로세스를 갖추고자 합니다.

-건강 보험.국제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이메일주소 kac@kac.or.kr 전화번호: 033-242-9615 (010-9429-3752)

3. 일본 메노나이트와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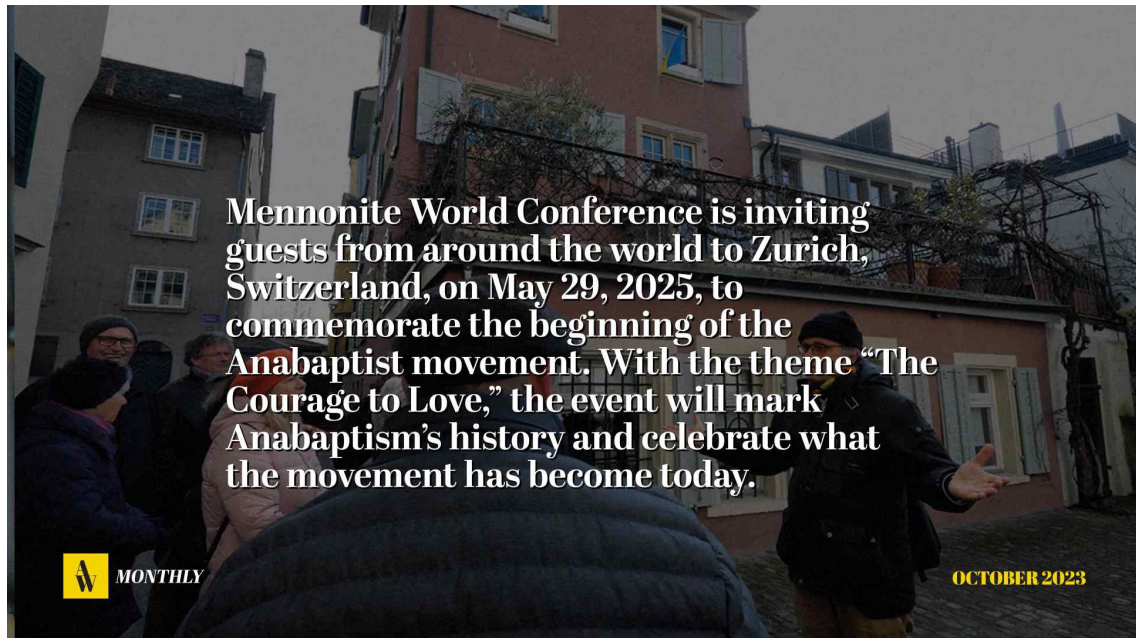
KAC는 일본메노나이트 Japan Mennonite Fellowship과 연결되어 일본교회를 방문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MCSK와도 함께 하여 한국과 일본의 국가적 관계를 뛰어 넘어 신앙, 평화, 상생을 매개로 하는 교제권을 다시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결: JMF대표 Shintaroh Okazaki

4. 2025년 아나뱃티스트 500 주년 기념 행사 준비

2025년은 아나뱃티스트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KAC는 2025년에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5월 29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500주년 기념 세계대회에 참석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에서는 아나뱃티스트 컨퍼런스와 함께 KAC의 25년차를 공동으로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세미나와 특별 모임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 YouTube 제작

허현 목사님께서 24년부터 KAC의 연구위원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로 아나뱃티스트를 알릴 콘텐츠개발에 도움을 주실 예정입니다. 그 일례로 YouTube를 제작하면서 조금씩 아나뱃티스트 신앙을 알리려고 합니다.